

주민이 마을을 ‘경영’ 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선장포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일과 휴식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효과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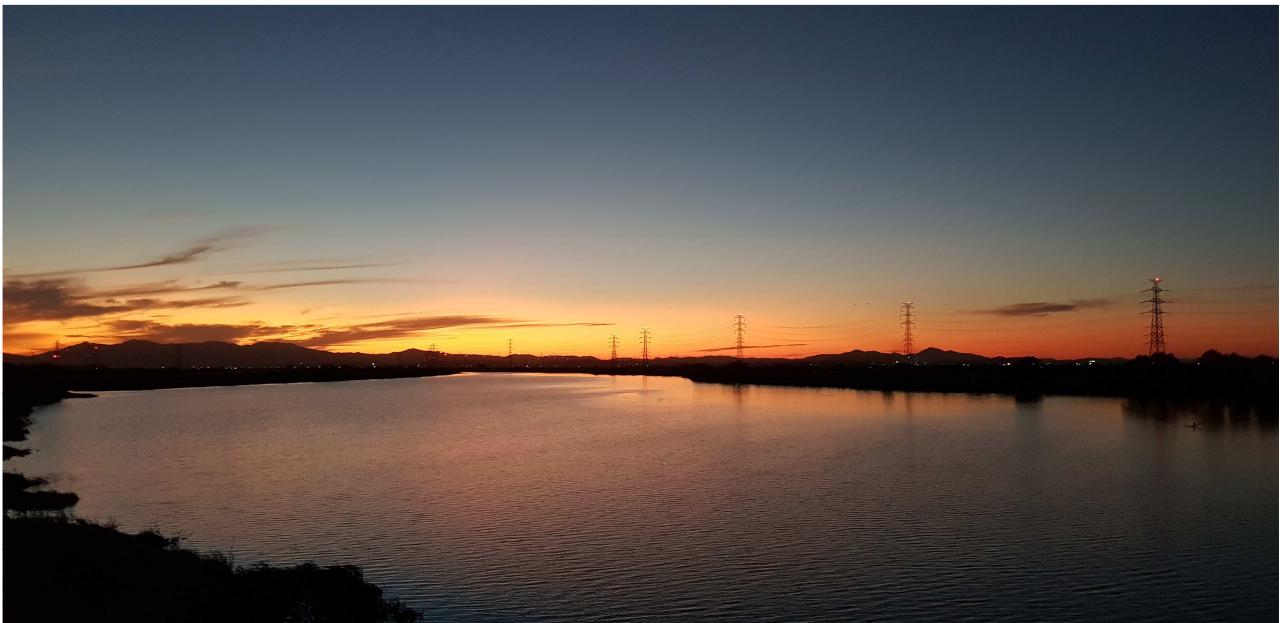


사진 1 : 선장포의 명물 붉은 노을 전경(제공 : 선장포협동조합)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주민 31명이 모여 마을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선장포 노을공원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장포협동조합(대표자 박응진)을 설립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그 결과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순히 정비사업 결과물에 대한 열매를 나누기보다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마을의 생존과 지역의 발전, 지역소멸에의 대응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실시하

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을 경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선장포협동조합은 충남 아산시 선장포노을공원 내에 위치한 협동조합으로, 선장포 노을캠핑장과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선장포 노을공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2-3 : 선장포 노을공원 및 선장포 협동조합 전경(제공 : 선장포 협동조합)

선장포 노을공원 등은 지역관광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노력이 정부의 농촌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군덕리 주민들이 선장포협동조합을 통해 이를 경영하는 구체화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의 지원금으로 농촌종합정비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삽교천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 마을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선장초등학교와 선장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개선 작업을 병행하여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관광상품개발로도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즉, 생태환경, 역사문화, 체험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주제를 제공하고, 선장포 노을공원을 중심으로 삽교천을 배경으로 한 캠핑장 개발 및 북카페, 야외공연장, 놀이터와 1650미터에 이르는 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4-5 선장포 캠핑장 배치도, 북카페 전경(제공 : 선장포 노을캠핑장 블로그)

군덕리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마을을 경영하여 얻는 수익을 다시 마을을 위해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장포협동조합은 노을공원과 삼교천을 배경으로 한 캠핑장을 필두로, 지역농산물 판매소, 북카페 등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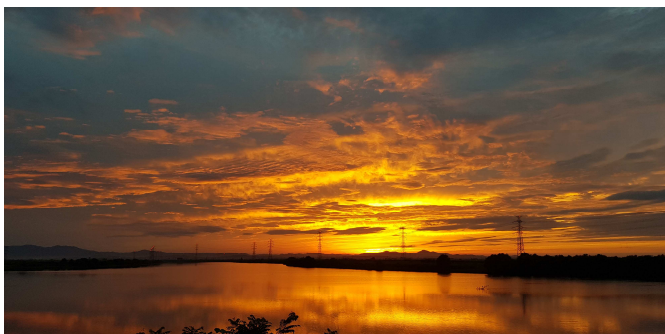


사진 6-7 선장포 야경, 선장포 노을캠핑장(제공 : 선장포협동조합)

선장포와 관련된 유래에 대하여 박응진 이사장은 “「선장포」는 과거 삼교천 방조제가 생기기 전 군덕리는 선장이라는 마을이름이 있었고, 선장마을의 앞쪽은 서해바다였고, 자그마한 포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선장포구를 기억하는 의미로 「선장포」로 이름을 짓게 되

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마을주민이 함께 경영하기 위해 주민 모두의 기억을 담은 의미있는 네이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선장포협동조합은 ‘취약계층도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젊은 계층이 이주하여 함께 어루러져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 8-9 선장포 북카페 내부, 선장포 노을캠핑장 전경(제공 : 선장포협동조합)

붉게 물드는 낙조풍경과 함께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선장포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주변의 삽교천과 아산만, 현충사와 공세리 성당, 외암마을까지 둘러볼 수 있는 힐링공간에서 삶의 쉼표를 잠시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 함께 하여 더욱 의미있는 선장포협동조합의 아름다운 마을경영이 지역소멸위험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마을들에게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번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